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한가위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연휴와 이어지는 공휴일로,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공동체 사무실과 공동체학교는 휴무합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먼 길을 오가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10월 1일)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 감사 )  
박태규 · 전향옥 집사 가정 ( 결혼기념 )

강단을 꽃으로 : 차태옥 사모 ( 생일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39 호

2023년 9월 24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은사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함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우리를 그분에게서 떼어 놓거나 형제들로부터 분리시키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심판 예언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셨습니까!(마 25:31-46) 얼마나 잘 조직되었나, 혹은 바른 행동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아프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 했는가입니다. 즉 사랑과 긍휼로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이 필요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랑을 견고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잊지 맙시다.

은사가 조금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가 너무 많아서 단순한 육체노동을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어떤 섬김도 해야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도 겸손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풍부합니다. 그건 자연적인 은사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때도 있지만, 묻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는 지적인 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게 될 겁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시시한 일을 하면서 재능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마 25:18). 우리는 전체 몸을 위해 우리의 타고난 재능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예언, 지도력, 치유 그리고 방언 등 여러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고전 12-13장). 그러나 바울은 이 위대한 은사들도 사랑이 없

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공동체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지 않으면 공동체는 생명 없는 기계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구제 활동 그리고 선교로 이끕니다. 우리만의 영적인 은사에 대해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방언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마 6:6).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은사주의 운동은 분열을 낳는 잘못된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존경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찾아와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산상수훈에 묘사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보이라고 충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언으로 말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를 드러내는 걸 삼가고 겸손, 사랑, 일치, 삶의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 계발이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에 살아 있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질 때 마음과 영혼의 변화, 성령과 하나님나라의 임재를 바랄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 즉 사랑의 기쁨, 형제자매와 나누는 기쁨, 남자와 여자가 순결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인종과 국가 간의 정의와 평화의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무력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나라의 기쁨이 땅과 하늘을 바꾼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의 [공동체 제자도]에서 발췌

## 한주간의 말씀

“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  
<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488 484 219 / 210

기도 :

성경 : 고린도전서 3장

제목 :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 1. 내용: 고린도 교회의 분파문제. (What)

<문단구분>

- 1~9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 10~17 성전의 터는 예수그리스도
- 18~23 하나님께 속하였다.

#### 2. 의미: 고린도 교회의 자랑함을 경계하다. (Why)

- 1) 고린도 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행동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었다.[1~4]
- 2) 순회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5~8]
- 3) 만물은 우리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21~23]

#### 3. 적용: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다. (How)

- 1) 항상 배울것이 있다 생각하며 듣자.[18~21]
- 2)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자.[5~10]
- 3)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가자.[13~15]

## 보고합니다

살롬~~ 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있으셨지요.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5년이 넘게 유치원, 학교, 학원으로 아이들과 같이 지내던 시간을 접어야 했어요. 모이지 못하면서, 개별학습인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실업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다른 것을 배워보자 하여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 나이가 적지 않아 본의 아니게 제일 큰 언니가 되어 열심히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취업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거의 어르신들이 환자로 입원하고 계셔서 요즘은 어르신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 특성상 교대 근무라 주일은 거의 지키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되면 방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려고 합니다. 방모임은 저에게는 웃고 울 수 있는 나의 상담소예요.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위로해주시며, 힘을 얻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손맛이 끝내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맛난 음식을 먹는다는 기쁨이죠.

결혼 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병원이라는 집단에 소속이 되어 일하다 보니 나의 생활이 조금은 얽매여 병원 시간에 맞춰 내 시간을 써야 하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만 놓고 '알아서 먹고 출근들 해' 하며 나가고, 낮에 출근하는 날에는 '저녁들은 알아서 먹어' 하니 먹거리가 점점 변해가네요. 간편식, 인스턴트 음식 등 즉석식품을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딸(진영)이 저에게 멋쟁이 때만 건강식으로 넘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한 지 벌써 5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고요. 일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이 늦은 나이에 내가 왜 이곳 병원에 와서 지내고 있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몸도 마음도 아픈 분들을 위로해주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환자들이나 간병사분들이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 다들 좋아하시고 아끼며 드시는 간식도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달력에 빨간 날짜에 쉬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나를 돌아보게 하네요. 이상 저의 요즘 근황을 보고드립니다.

비움사랑방 정혜옥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4 : 1-3  
2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에베소서 4 : 3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36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15 : 1-12  
591

설교자  
새싹사랑방  
정재훈 목사

“ 신앙의 열매를 맺읍시다 ”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220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어직 이돈희 / 봉헌위원 : 정영옥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저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머물게 하셔서  
날마다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 공동기도문

### 신앙의 열매를 맺읍시다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는 이스라엘에 매우 친숙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나무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새로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서는 참 포도가 들 포도나무에서는 들 포도가 열립니다. 결국 그 열매는 사람이 삶으로 드러내는 마음의 태도나 자세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인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들 포도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고 계시는 사랑의 교제 안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저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병우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이번 주에는 9월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씩씩하고 착한 이든이의 생일날에 맞춰서 화요일에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사실 누나 두 명이 몸이 안좋아서 학교에 못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든이 생일잔치가 야한다고 눈물도 흘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와서 어렵게 모든 꾸러기들이 이든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이날 멋진 넥타이와 셔츠를 입고 이든이가 나타났는데 어린왕자와 같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든이를 생각하며 만든 개성 있는 카드들과 에너지가 넘치는 몸으로 주는 선물로 아주 뜨겁게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오는 수요일에 꾸러기들은 우산을 쓰고 덕수궁에 다녀왔습니다. 전통적인 궁의 모습과 서양의 신문물 합쳐진 덕수궁만의 멋진 비오는 날에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제국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석조전을 예약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설해주는 선생님이 다른 팀도 있었지만 꾸러기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주셨는데 45분이란 긴 시간동안 꾸러기들이 한 번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아주 멋지게 해설을 들었습니다. 가기 전에 책과 영상으로 봤던 덕수궁을 실제로 보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멋과 새롭게 변하는 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에는 학생들의 자치회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가 직접 투표한 회장, 총무, 서기가 있는 회장단이 있습니다. 각 학년에서는 학년장도 뽑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로는 놀잇감 정리부, 시설관리부, 체육부가 있습니다. 부장은 5학년이 담당합니다. 3학년 이상은 부서활동이 의무지만 저학년은 부서활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각 부서를 선택할 때 학생들의 성향이 보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지원한 어린이, 될 수 있는 대로 일이 적어보이는 일을 선택하는 어린이, 친구 따라 선택한 어린이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부서를 선택합니다. 우유부단한 몇몇 친구들은 복수 선택을 해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자치회를 잘 꾸려나갑니다. 건의사항 중 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때 공이 자주 다리 밑에 끼어서 빼내기 어렵다는 건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5.6학년들과 함께 배수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어린이학교입니다. < 교사 : 권재만 >

### 멋쟁이학교

아름다운 노을과 찬 공기가 가을이 한층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느끼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체 학부모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교육의 현실과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교육의 본분을 고민하고, 삶의 경험을 나누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자회 준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멋쟁이들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꺼내보고, 그 날에 가질 즐거움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동심화학습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미래> 3주차에 접어들입니다. 형식을 맞추어 정리한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공부와 노력이 깃든 훌륭한 결과물을 기대해봅니다. 멋쟁이 테마여행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테마는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건축], [디자인], [사진], [조소/공예], [회화]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멋쟁이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여행인 만큼, 적극적으로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을 잘 가지길 기대합니다. 2학기 들어서 멋쟁이들이 책이나 과목만이 아니라, 생활속에서도 배움의 경험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합니다. 모두가 함께 발맞추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 바다 건너 온 편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교장 선생님과 사모님.  
모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시죠?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저희들은 시간 날 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방공동체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저희들이 귀국한지도 벌써 2년 2개월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카톡과 한메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사모님을 통해서 전하던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걱정하실 것 같아 짧은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모두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노아가 벌써 중학생 되었고요. 막내 루가가 유치원에 잘 적응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는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는 좋은 100㎡ 정도 된 아름다운 공간을 예비해 주셨어요.

가정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랑방 초창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꼬마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서 그냥 허락 없이 중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했어요. 제가 강의나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저의 전용어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는 용어 때문에 사업하시는 자매님이 큰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비어 있는 큰 아파트(160㎡)를 그냥 비용 없이 장기간 빌려주셨어요. 이 공간은 주일에는 대학생 중심으로 모이고 주중에는 게스트룸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안 때문에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조용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3. 9.19

해은 가족 드림

## <주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291, 320  
성 경 :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 씬 :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위상이 흔들린 틈을 타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정해달라고 아르메니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었다. 아르메니아 분리주의자들은 아제르바이잔군이 전투용 항공기, 대포, 공격용 드론 등을 동원해 자치 지역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의 교육을 위해>
  - 1) 한국 교회의 주일교육과 주중 교육에 하는 지원을 위해
  - 2) 교회와 공동체가 바른 교육을 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손님과 선교바자회>
  - 1)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이사 방문: 기독교 정신을 이어 나가도록
  - 2) 사랑방공동체학교 선교 바자회를 위해 : 공동체에 힘이 되는 기가 되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생활 식구들의 생일을 매달 축하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 생일을 맞은 식구들이 가장 많아서 8명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항상 생일축하를 하면 이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공동체에서 살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식구로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스모스가 흐드러진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여름 작물들은 시들어가고 고추도 마지막 추수를 했습니다. 배추모종은 이제 제법 커서 배추의 모양이 되어갑니다. 벌레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남아 있는 감자와 고구마를 캐야할 것입니다. 가을걷이와 바자회준비로 더욱 바빠진 식구들이 건강에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